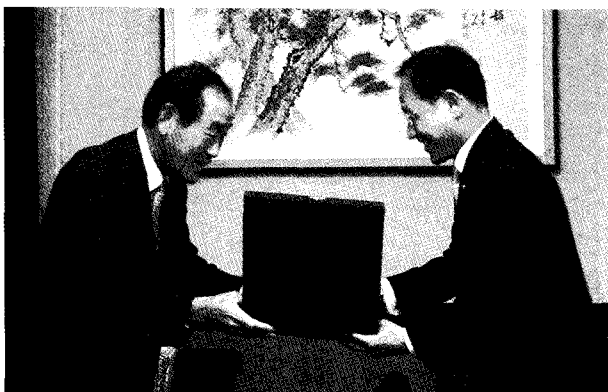


## 對EU 복합기능휴대폰 관세분쟁 타결



지난 8월 26일 허용성 관세청장은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윤중용 회장으로부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 가능한 복합기능 휴대폰을 둘러싼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해결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중용회장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수출주도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해외 애로를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수출입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관세청이 관세업무의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EU와의 수출 휴대폰의 관세 숙제를 말끔하게 처리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날 허 청장은 품목분류 문제가 주요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체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감열 상근부회장과 관세청 관련 국과장이 배석하였다.

EU는 그동안 휴대폰에 TV 수신기능이 부가되는 경우 TV로 취급해 14%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휴대전화에 대한 관세가 0%임을 고려하면 DMB폰 제조사에게는 해당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었던 셈이다.

EU 집행위는 8월 7일(금)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관보에 게재하였는바, 이로써 韓-EU간 통상현안이었던 복합기능 휴대폰 관세분쟁(품목분류) 문제가 정부, 특히 관세청과 외교통상부, 협회(KEA), 해당업체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으로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다기능 휴대폰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되며, 약 820만 Euro(약 150



EU 집행위는 8월 7일(금)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관보에 게재하였는바, 이로써 韓-EU간 통상현안이었던 복합기능 휴대폰 관세분쟁(품목분류) 문제가 정부, 특히 관세청과 외교통상부, 협회(KEA), 해당업체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으로 해결되었다.

억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07년~'08년 EU의 일부 회원국 세관은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무관세)이 아닌 여타 품목(TV, 내비게이션 등)으로 분류한바,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DMB폰(관세 14%) 및 GPS폰(관세 3.7%) 등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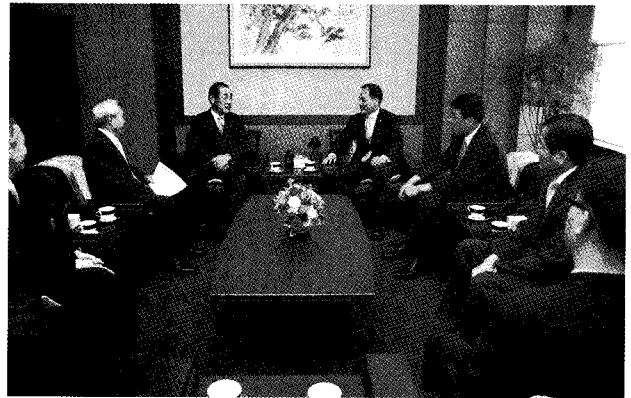
※ 국내 휴대폰업체의 '08년 DMB폰 납부 관세액 : 약 1,400만유로(250억원)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2월 9일(월)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시 동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였고, 2월 18일(수)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및 주EU 대표부의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 EU 집행위측에 강한 우려를 제기 하였다.

우리 정부는 휴대폰과 같이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제품에 대해 분류기준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제품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바, 휴대폰에 다른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주기능은 휴대폰임을 강조하였다.

EU 집행위는 우리 정부 등의 우려를 수렴하여, 7월 1일~3일 EU 관세규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를 개최,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승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2차적인 다기능(E-mail 수신, PDA, 라디오·TV 수신, GPS 등)이 추가되어도, 전화 수신 기능이 우선될 경우, 휴대폰으로 분류하되, 일정 크기(접은 상태에서 170 mm × 100 mm × 45 mm)를 초과해서



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화기능 이외의 Internet, Navigating, PDA, Radio, TV 등의 부수기능으로 판단된다.

금번 결정으로 우리 업체의 對EU 다기능 휴대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는 EU에 연간 약 6,500만대(110억불 이상)의 휴대폰을 수출하여 30%를 상 회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동 수치는 DMB폰, GPS폰 및 여타 휴대폰을 포함한다.

EU내에서 복합기능(TV, GPS 등) 휴대폰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되어 기납부 관세 환급 및 향후 수출시 관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09년 EU회원국 수출(예정)액으로 환산시 연간 8,700만 유로(약 1,560억원)의 관세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각사 對EU 휴대폰 수출량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年 5,000만대(약 80억불), LG전자가 年 1,530만대(약 30억 불)이다. EU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21%), LG전자(10%)이다. 휴대폰 수출물량 중 EU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23.0%), LG전자(17.1%)이다.